

# 대학에서의 영문법 교육

박 승 윤  
(성균관대학교)

Bak, Sung-Yun. 2002. *University Grammar of English in Korea*.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4, 537-553. This paper discusses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teaching of English grammar at Korean universities. We first discuss whether English grammar should be taught at universities, and, if it is, what kind of English grammar needs to be taught. We propose that the English grammar we teach to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be eclectic in the sense that the traditional grammar established by Jespersen and others be the major source of instruction, supplemented, if necessary, by school grammar and also by linguistically oriented grammars such as generative grammar or cognitive grammar. Then we discuss the content of the English grammar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curriculum : (i) present perfect vs. past, (ii) *will* vs. *be going to*, (iii) *must* vs. *have to*, (iv) *may* vs. *can*, (v) infinitives vs. gerunds, (vi) conative constructions, and (vii) the passive.

##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으로 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문법을 교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 한국 대학의 영문법 과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제언을 하는 데 있다. 1절에서는 한국의 대학에서 도대체 영문법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2절에서는 만약 영문법을 가르쳐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영문법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3절에서는 한국 대학에서의 영문법을 가르칠 때 포함되어야 할 영문법 내용의 일부를 항목별로 간략하게 논의한다. 4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6-7차 교육과정에 의해 영문법이 영어 교

과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 대신 영문법의 일부가 소(expression) 속에 감추어진 상태로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영문법이 그 자체로는 교육되고 있지 않다. 영문법이 이처럼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에서 배제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해방 후부터 최근까지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데 주로 사용된 문법-번역(grammar-translation)식 교육방법에 대한 반성 내지 거부감이다. 문법과 번역을 중심으로 한 영어교육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습득과 발달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번역과 문법을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에서 배제 내지 축소하려는 의도는 그 나름대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론적인 것으로, 영어를 모국어(L1)로 사용하는 영미 어린이들의 경우, 이들이 명시적 외형적 문법교육을 받지 않아도 영어를 완벽하게 습득하는 것으로 보아, 외국어로 영어를 습득하는 경우(L2)에도 외형적 문법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논거이다. 그러나 이 논거는 문제가 있다. 이 논거는 L1의 언어 습득 과정이 L2의 언어습득 과정과 동일하다는 이론적 가설(즉, L1 = L2)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이 옳바르다는 증거가 없다. 지금까지 L1 = L2 가설을 주장하는 논의는 주로 EFL 상황이 아니라 ESL 상황을 주로 염두에 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이민을 온 외국 어린이들이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 이들의 L2 습득과정이 영미어린이들의 L1을 습득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EFL 과정은 ESL 과정과는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L1 = L2 가설에 의거하여 한국의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영문법을 배제하거나 영문법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 하는 것은 결코 옳바르지 아니하다.

세 번째 이유는 현 교육과정에서 정확성(accuracy)보다는 유창성(fluency)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유창성이 중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문법이 유창성의 습득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정확성에 있어서는 더욱이 필요한 영문법을 교과서에서 문형 뒤에 숨겨 놓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관하여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

여하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영문법이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한 많은 학생들이 영문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최근 대학생들의 TOEFL 성적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TOEFL에서 듣기(listening)가 제일 어렵고 구조(structure)는 비교적 용이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구조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고 구조 부분에서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이 많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영문법 교육은 대부분 피상적인 문법의 대강(rough outlines)을 가르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현대 언어학적 입장에서 볼 때 올바르지도 않다.<sup>1)</sup>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에서는 부정사(infinitive)와 동명사(gerund)가 명사(noun)와 유사한 문법적 지위(statu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주어의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학생들은 부정사와 동명사가 서로 바꾸어 써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일치(concord)에서 (n)either A (n)or B가 주어일 때 동사의 수(number)를 결정하는 것은 B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부정사와 동명사는 의미나 용법에 있어서 많은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3.5 참조). 그리고 일치도 문법적 일치(grammatical concord) 외에도 관념적 일치(notional concord)가 있기 때문에, (n)either A (n)or B에서 항상 B가 동사의 수를 결정하지도 않는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미묘한 현상까지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바로 이점이 대학에서의 영문법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대학에서의 영문법 교육은, 위에서 논의한 대로, 중등학교에서의 체계적 영문법 교육의 부재와 피상적이고도 정확하지 않은 영문법교육의 실태에 의해 요구된다. EFL 상황에서의 영어학습은 L1에서의 모국어 습득이나 EFL 상황에서의 외국어 습득과는 다르다. 학생들은 주 4-5 시간 정도 교실이라는 인위적 환경에서 영어에 접하다 교실을 떠나면 다시 모국어로 돌아와 국어로 생활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영미 어린이들에게서와는 달리,

<sup>1)</sup> 물론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중고등학교의 교육 현실 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영어의 문법적 직관(grammatical intuition)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자리잡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 가지 대안으로, 학생들은 영문법의 학습을 통해 영미 모국어 화자들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영어의 문법체계와 문법적, 언어적 지식을 인위적으로나마 배운 뒤, 계속되는 영어와의 접촉 내지 경험을 통해 인위적으로 배운 지식들이 머리 속에 자리잡게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대학에서 올바른 영문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떠한 영문법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한 가지는 지금까지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온 학교문법(school grammar)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문법은 18세기 끝 무렵에 영국과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영문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Lindley Murray의 *English Grammar Adapted to the Different Classes of Learners*(1795)의 문법에서 시작되는 일련의 영문법 책들로, 의미에 기반을 둔 팔품사의 분류와 품사를 기반으로 한 문법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문법책들은 학교문법 계통의 문법서라고 말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학교문법은 언어에 대한 과학적 이해나 이론이 정립되기 전 라틴어 문법 모델을 따라 기술된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체계가 없고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제(tense)와 시상(aspect)의 구분이 없어 영어의 시제는 12개가 있다든지, *It's ...* 에는 주격보어가 와야 하므로 *me*가 아니라 *I*가 쓰여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Gleason(1965)이 “European scholarly tradition”이라고 부른 전통문법(traditional grammar)이다. 전통문법은 Sweet의 *A New English Grammar* (1891)로부터 시작하여 Jespersen의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1909-1049), Poutsma의 *A Grammar of Late Modern English*(1904), Krusinga의 *A Handbook of Present-day English*(1911)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문법의 체계를 포함한다. 전통문법은 당시에 눈을 뜨기 시작한 비교역사 언어학(comparative-historical linguistics)의 학문적 기반에 의거하여 영문법의 기술에 있어 일관된 체계가 있고, 영미

모국어 화자들이 가지는 영어의 정교한 문법과 의미상의 차이들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너무 방대하여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 대학 영문법 과목에는 그대로는 가르칠 수 없다. 또한 Jespersen의 문법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개념들(예, junction vs nexus라든가 primaries, secondaries, tertiaries의 three ranks)을 그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지도 확실치 않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언어학 이론, 특히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의 이론적 틀 내에 있는 영문법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1960년 이후 쏟아져 나온 생성문법의 많은 저서들이 포함 되겠는데,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언어학 이론의 책이지 영문법을 다룬 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많은 경우 영어가 논의된다 할 지라도 언어학 이론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예외적으로 영문법만을 다룬 책도 있는데, 예를 들어, Radford (1988, 1997)나 Haegeman & Gueron(1999)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언어학 이론에 근거를 둔 영문법 책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실용성이 결여되어, 언어학이나 영어학을 전공하려는 대학원생들을 제외하면 그리 환영할 만한 책들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떠한 영문법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이냐에 달려 있다. 만약 그 대상이 언어학이나 영어학을 전공하려는 예비학자가 아니라, 단순히 영어를 보다 잘 이해하고, 중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 했거나 잘 못 배운 영문법의 한계를 벗어나 영어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정교한 문법적 지식을 갖기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Jespersen 등이 확립한 전통문법을 위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설명의 편이를 위해 학교문법의 일부와 현대 언어학 이론에 근거한 영문법의 일부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절충식 영문법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통문법을 중심으로 가르친다고 하여도, 전통문법이 쓰여진 20세기 초에 유행하였던 비교-역사언어학적인 개념들과 학자 특유의 문법적 개념(예를 들어 Jespersen의 “three ranks”등)을 제거하고, 전통문법의 주요 내용을 한 학기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교과과정을 가진 영문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한다.<sup>2)</sup>

<sup>2)</sup>Jespersen이 쓴 문법서는 그 자체로는 현재 대학에서 가르치는 데 부적

## 2. 본론

이제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잘 못 알고 있고, 때문에 대학 영문법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문법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지면의 제약상 특히 한국 학생들에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을 골라 (이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으나) 논의하려고 한다. 제시된 예들은 거의 모두 참고문헌에서 인용한 것이다.

### 2.1. 현재완료(present perfect) 시제와 과거(past) 시제

영어의 현재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의 차이는 한국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현재완료 시제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는 영어의 현재완료가 나타내는 시간(time) 개념을 나타내는 형태가 국어에는 따로 없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영어의 현재완료가 나타내는 시간은 국어에서는 과거 시제로 표현되거나 “..하여 (지금까지) 있다”처럼 복합동사의 형태를 취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 (1) a. John joined the army.  
 b. John has joined the army.

(1a)-(1b)의 경우 존이 군에 입대한 시간은 동일하다. 그런데 과거 시제로 표현된 (1a)는 존이 군에 입대하였다는 과거의 일을 하나의 사실로 말할 뿐, 그가 현재 군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완료 시제로 표현된 (1b)는 존이 군에 입대하여 지금까지 복무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이처럼

---

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MEG는 너무 방대하고,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1933)은 예문들이 현대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전통문법에 기반을 두고 근래에 쓰여진 Quirk, R. & S. Greenbaum(1973) *A University Grammar of English*(Longman)나 전통문법과 언어학적 이론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Celce-Murcia, M. & D. L. Freeman(1999) *The Grammar Book*(Heinle & Heinle)등을 가르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혹 구어적 자료에 관심이 있다면, Azar, B.(1999) *Understanding and Using English Grammar*(Prentice Hall) 등이 권할 만 하다.

현재완료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 즉 현재의 입장에서 본 과거라는 의미를 지닌다.

(1a-1b)는 국어에서 모두 (2)처럼 과거 시제로 표현되거나,

(2) 존은 군에 갔다.

아니면 (1a)는 (2)로, (1b)는 다음 (3)처럼 표현될 수 있다.

(3) 존은 군에 가 있다.

그러나 (2)도, 복합동사의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시제는 역시 과거이다. 이처럼 국어에서는 영어의 현재완료 시제가 나타내는 시간을 표현하는 시제가 없고, 이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영어의 현재완료가 나타내는 시간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4) a. Have you had breakfast?

b. Did you have breakfast at the hotel?

(4a-b)는 모두 아침을 먹었는지를 묻는 예인데, (a)에서는 현재완료가 (b)에서는 과거시제가 쓰인다. 만약 발화의 시점이 오전 11라고 할 경우, 아침식사를 한 행동은 현재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4a)에서처럼 현재완료가 쓰인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에서라 할 지라도 (4b)에서는 at the hotel 이라는 표현이 청자가 호텔에 갔다 왔다는 과거의 시점을 분명히 해주기 때문에 과거시제가 쓰인다. 이처럼 현재완료가 쓰이는가 아니면 과거가 쓰이는가는 어떤 행동이 현재와 관련이 되는가 아니면 명백히 과거에 속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국어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이 모두 “너 (호텔에서) 아침 먹었니?”라고 동일하게 말한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에게는 (4a-b)의 구분이 아주 어렵다.

(4)에서는 현재완료와 과거의 구분이 at the hotel 이라는 형태상의 유무에 의해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만, 다음과 같은 예에서는 이 구분이 전혀 화용론적으로 결정된다.

- (5) a. Have you seen him today?  
 b. Did you see him today?

(5)는 모두 어떤 남자를 보았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아무런 특수한 전제 조건이 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5a)가 쓰인다. 왜냐하면 그 남자를 만난 것은 발화 당일 내에서 이루어졌고, 이런 점에서 그를 만난 것은 발화의 시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남자가 출근 시간(예, 오전 8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만나는 남자라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그 남자를 만난 것은 명백히 과거의 일로 여겨지며 이런 경우는 (5b)에서처럼 과거 시제가 쓰인다. 국어에서는, 영어의 현재완료와 과거와 같은 구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5a-b)가 모두 동일한 과거시제로 나타나며 이런 구분은 한국학생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영어에서 현재완료인가 과거인가는 어떤 과거의 행동이 현재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데, 이런 구분이 외형상으로 암시된 경우(예 (4))도 있고, 전혀 화용론적으로만 구분이 되는 경우(예 (5))도 있어, 이러한 구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학생들에게는 현재완료의 이해가 아주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관계 상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많은 예를 통해 이러한 차이가 영미인들처럼 머릿속에 자리잡도록 인위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 2.2. *will*과 *be going to*

영어의 미래표지에는 *will*과 *be going to*가 있는데, 학생들은 이들이 동일한 것으로 잘 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will*과 *be going to*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will*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화자가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의사(willingness)가 있음을 내비치는 것인 데 반해, *be going to*는 어느 정도 준비된 의도(*premeditated intention*)가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을 보자.

- (6) a. There's somebody at the hall door. I'll go and open it.  
 b. I've bought some bricks. I'm going to build a garage.



(6a)는 현관에 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문을 열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장으로 이 경우에는 be going to가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에 반해 (6b)의 경우 화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벽돌을 사 왔을 것이므로, 그가 그것으로 무슨 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미리 준비된 의도이다. 이런 경우에는 will 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will과 be going to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의 차이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외형상의 조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도 있다.

- (7) a. He will get better.  
b. He is going to get better.

- (8) a. The lift will break down.  
b. The lift is going to break down.

- (9) Look at the black clouds. It's going to rain.

(7a-8a)에서 will은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는 화자의 단순한 예측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7b-8b)와 (9)의 be going to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조짐이 현재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일 때 쓰인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그런 경우 나오리라는 단순한 예측을 할 때는 (7a)가 쓰인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환자가 열이 내리고 눈빛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의사가 환자가 나오리라고 말할 때는 (7b)가 적절하다. (8a)가 어떤 승강기를 보고 (8b)도 승강기가 덜컹거리고 위험이 느껴져 "Let's get out of here. Quick!"라고 말하여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적절하다. (9)에서도 검은 구름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므로 will 보다는 be going to 가 더 적절하다.

will과 be going to의 이러한 차이, 즉 "즉각적인 willingness" 와 "준비된 의도성,"의 차이, 그리고 "단순한 예측"과 "외형상의 조짐이 보이는 빠른 시간 내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차이는 will 과 be

going to가 가지는 본래 의미에 기인한다. will과는 달리, be going to는 진행형으로 어느 정도 행동이 이루어져 왔다는 의미를 지니며, 이 때문에 “준비된 의도성”이나 “외형상의 조짐이 보이는 미래 사건”을 나타내는 데 적절하다. 또한 be going to에서는 현재성이 강조되며,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be going to는 “빠른 시간 내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의미가 나타난다.

### 2.3. must 와 have to

많은 학생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의무(obligation) 표지인 must 와 have to 이다. 학생들은 이 둘이 거의 유사하여 서로 대치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must 와 have to는 기본적으로는 상이하다. must는 화자가 자기 자신의 권위(authority)에 의거하여 청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쓰이고, have to는 외부적 의무(external obligation)로서 주변 여건상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타낼 때 적합하다. 다음을 보자.

- (10) a. Hijacker (to Pilot): You must land the plane.  
 b. Pilot (to Co-pilot): We have to land the plane.

- (11) a. Teacher (to pupil): You must practice at least an hour a day.  
 b. Pupil (to friend): I have to practice at least an hour a day.

(10-11)의 (a)에서는 화자가 자기의 권위에 의해 청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로써 이 때는 must가 적절하다. 그러나 (b)에서는 주변 여건상 비행기를 착륙시키거나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must 보다는 have to가 더 적절하다.

- (12) If there are no taxis, we have to walk.

- (13) She has to make her children's clothes. She can't afford them.

#### 2.4. *may* 와 *can*

*must*와 *have to* 사이에서의 차이와 비슷한 현상이 허가(permission)를 나타내는 *may* 와 *can*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may*는 화자의 권위에 의해 청자에게 어떤 일을 허락할 때 쓰이고, *can*은 외부적 허가(external permission)로서, 권위의 출처와는 상관없이, 주변 여건상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 (14) a. You may park here.  
b. You can park here.

(14a)는 주차원이나 경찰관이 말합직한 문장이다. 이 경우 이들은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해 청자가 주차할 수 있음을 허가하는 의미를 지닌다. 반면 914b)는 친구가 동료에게 이곳이 주차구역 등으로 주차가 허용된 곳이기 때문에 주차해도 좋다는 의미를 지닌다. (14a-b)의 의미는 다음처럼 바꾸어 써 볼 수 있다.

- (15) a. I give you the permission to park here.  
b. You have a right to park here.

#### 2.5. 부정사와 동명사

많은 학생들이 부정사와 동명사는 소위 명사적 용법이 있고, 이 경우 둘은, (16a-b)에서처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 (16) a. Playing tennis is fun.  
b. To play tennis is fun.

그러나 부정사와 동명사는 의미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사는 미래지향적(future-oriented) 행동에, 동명사는 동시적(contemporary)이거나 이전에(anterior) 발생한 행동을 나타내는 데 적합하다. 개략적으로 부정사는 이후성(posteriority), 동명사는 이전성(anteriority)적인 의미를 지닌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 (17) a. John always remembers to lock the door.  
 b. I remember seeing the Alps for the first time.

- (18) a. I tried to play golf.  
 b. I tried playing golf.

(15)에서 (a)는 “문을 잠글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b)는 “처음 알프스를 본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18)에서도 (a)는 “골프를 배우려 노력한다”는 의미를 지니나, (b)는 예를 들어 사업을 위해 “골프를 치는 것을 해보았음”을 의미한다.

부정사의 이후성은 어떤 경우에는 특수성(specificity)을, 동명사의 이전성은 일반성(generic)을 나타내기도 한다.

- (19) a. Refusing invitations is not always easy.  
 b. He said, "Do come." It was difficult to refuse.

(19a)는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일반적인 진술인 반면, (19b)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거절을 의미한다.

## 2.6. Conative 구문의 의미

많은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다음 (20b)와 같은 소위 conative구문과 (20a)와 같은 정상적인 타동문 사이의 차이이다.

- (20) a. The hunter shot the deer.  
 b. The hunter shot at the deer.

(20a)에서 타동사 shoot는 뒤에 오는 목적어(the deer)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20a) 뒤에는 "But he missed it"같은 문장이 따라 나올 수 없다. 그러나 conative 구문인 (20b)에서는 주어인 the hunter가 목적어인 the deer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 총을 쏘았다는 의미만을 지니며 그 행동이 반드시 성공하였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20b) 뒤에는 "But he missed it" 같은 문장이 따라 나올 수 있다. 다음 예도 비슷한 차이를 보여준다.

- (21) a. The visitor beat the door down.  
 b. \*The visitor beat at the door down.

(21)에서 the door down은 소절(small clause)로서 "문이 부서졌음"을 의미한다. 이 소절은 beat의 목적어는 될 수 있으나, beat at의 뒤에는 나올 수 없다. 이는 beat at 의 경우 소절의 내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2.7. 절(clause)의 종류에 따른 의미상의 차이

Borkin(1984:79)이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은 종속절의 형태가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의미도 다르다.

- (22) a. I find that the chair is comfortable.  
 b. I find the chair to be comfortable.  
 c. I find the chair comfortable.

(22)에서 (a)는 that 절을 포함하는 문장으로 (a)에서는 that 절의 내용이 객관적인 정보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22c)는 소절을 포함하고 있으며, (22c)는 주어인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화자가 상품평가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어떤 의자가 편하다고 할 때는 (22a)가 쓰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화자가 자신이 직접 의자에 앉아보고 그 의자에 관한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할 때는 (22c)를 쓸 것이다. 반면 (22b)는 어느 경우에도 쓰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영어의 세 가지 종속절이 가지는 의미, 화용상의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2.8. 수동문

수동문은 상응하는 능동문으로부터 주어와 목적어를 엮바꾸고 동사를 be 동사를 포함한 형태로 바꾸어 줌으로써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별 큰 문제가 없는 구문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영어에서의 수동문은 국어에서보다 훨씬 다양하며 수가 많다. 따라서 수동문이 듣기나 읽기 같은 인식(recognition)의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될 지 모르나, 말하기나 쓰기 같은 발화(production)의 측면에서는 많은 학습 상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영어에서는 patient가 아닌 도구(instrument), 장소(locative), 시간(time), 목표(goal) 과 같은 논항(argument)도 그들이 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질 경우, 즉 causee일 경우, 자연스럽게 수동문의 주어가 되고 그 결과 수동문이 성립한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주어로는 유정체(animate)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구, 장소, 시간, 목표와 같은 논항은 causee라 할지라도 주어가 되지 못하여 수동문을 이룰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대신 능동문이 쓰인다. 따라서 대조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많은 수동 구문이 한국학생들에게 어려운 학습 대상이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자.

(23) a. John was given an award.

b. 존은 상을 받았다. (\*존이 상이 주어졌다.)

(24) a. Mr.Chang was told the news immediately.

b. 장씨는 곧 그 이야기를 들었다.

(\*장씨가 그 이야기가 들려졌다.)

(23-24)에서 John과 Mr.Chang는 모두 목표 논항이다. 영어에서는 이들이, (23a-24a)에서처럼, 수동문의 주어가 되어 수동문이 성립한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이들이 주어는 될 수 있지만, 수동문의 주어는 되지 못하며 능동문의 주어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23a-24a)와 같은 수동문을 이해는 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잘 만들어 쓰지는 못한다. 동일한 이유로 전치사의 목적어 수동문의 주어가 되는 다음과 같은 구문도 학습하기 어렵다.

(25) a. The house was broken into last night.

b. 누군가가 어제 그 집을 털었다.

(26) a. The bed was slept in.

b. 누군가가 그 침대에서 잤다.

(25a-26a)에서처럼 영어에서는 장소의 논항이 주어라 되어 수동문이 성립하나, 국어에서는 유정체 주어라는 제약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5a-26a) 같은 수동문을 한국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쓰는 예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영어에서는 타동사로 규정되어 수동문을 만들 수 있으나, 국어에서는 자동사로 규정되어 수동문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27) a. The land was inhabited by native people.

b.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았다.

(28) a. The man was outlived by his wife and children.

b.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보다 더 오래 살았다.

(29) a. The room was cluttered with dirty clothes.

b. 그 방은 더러운 옷들로 가득했다.

(30) a. John was seated at the end of the table; he was flanked by two women.

b. 존은 식탁 끝에 앉았다. 옆에는 여자 둘이 앉아 있었다.

(27-30)에서 보듯이, 영어에서 inhabit, outlive, clutter, seat, flank는 타동사로 자연스러운 수동문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들에 해당하는 국어의 동사들은 모두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형으로 쓰일 수 없다. 따라서 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의 원칙이 암시해 주듯이, (27a-30a)와 같은 수동문들은, 적어도 production의 면에서, 한국 학

생들에게 상당히 배우기 어려운 구문에 속한다. 이처럼 국어에서는 도저히 수동으로 표현될 수 없으나 영어에서는 수동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동사들이 영어에 아주 많기 때문에 영어의 수동표현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 3.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대학에서의 영문법 교육과 관련하여, (i) 도대체 대학에서의 영문법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ii)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영문법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그리고 (iii) 대학에서의 영문법 교과에 포함되어야 할 영문법 내용의 일부를 논의하였다. 대학에서의 영문법 교육에는 이밖에도 여러 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영문법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교재로는 어떠한 것들이 적합한지와 같은 논의들이 있으나 이에 관한 논의는 뒤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영세 · 이경남. 2002. 문법항목의 난이도. 2002년도 한국영어학회 여름학회에서 발표논문.
- 문용. 1999. 『한국어의 발상. 영어의 발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 Aarts, F. G. A. M. 1972. Approaches to English Grammar: From Henry Sweet to Noam Chomsky. Ms.
- Azar, B. S. 1989. Understanding and Using English Grammar. London: Prentice Hall.
- Borkin, A. 1984. Problems in Form and Function. Norwood, NJ: Ablex.
- Gleason, H. 1965. Linguistics and English Grammar. N.Y.: Holt, Rinehart, & Winston.
- Haegeman L. and J. Gueron. 1999. English Grammar: A Generative Perspective. Oxford: Blackwell.
- Jespersen, O. 1909-1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Lee, Keedong. 2001. Conative Construction in English. Paper presented to 1st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course and cognitive linguistics.
- Radford, A.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A First Cour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ford, A. 1997. Syntactic Theory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A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ompson, A. and A. Martinet. 1986. A Practical English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박승윤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우편번호: 110-745  
전화: 02) 760-0269  
E-mail: sybak@yurim.skku.ac.kr

접수일자: 2002. 9. 30.  
게재결정: 2002. 11. 15.